

# 해외관광객유치 야간관광상품개발 시동

## 전주시, 한국국제관광전 참가 전주홍보관 운영 국내외 관광객 유치 위한 홍보활동 전개

전주시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국제관광전에 참가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시는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32회 한국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전주홍보관을 운영하고, 전주로 떠나는 철도여행과 SIT(특수목적관광)상품, 전주문화재여행, 덕진공원 야간상품, 전주비빔밥축제 등을 홍보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화관광인바운드리프트에 참가, 러시아, 오스트리아, 인도, 베트남 필리핀 여행업자 30여명을 초청한 팸투어를 4일과 5일 1박2일 동안 전주에서 실시하고, 전주한옥마을과 덕진공원, 전주문화재여행 상품 등을 연계한 해외여행상품을 개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덕진공원 야간 수상공연 '실록을 탐하다'와 전주문화재여행 '달빛기행' 등을 해외여행업자들에게 관람시키고 상품을 홍보하는 등 야간관광상품개발과 홍보를 적극 펼쳤다.

또한 전주시는 외국인관광객유치를 위해 인바운드 여행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B2B트래블마트와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주관광을 홍보하고 여행 상담회를 전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오는 9월까지 매월 토요일마다 열리는 전주문화재여행 달빛 프로그램을 관광상품화 하기위해 전주문화재여행사업단과 공동으로 전



전주시는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32회 한국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전주홍보관을 운영하고, 전주로 떠나는 철도여행과 SIT(특수목적관광)상품, 전주문화재여행, 덕진공원 야간상품, 전주비빔밥축제 등을 홍보했다.

주문화재여행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느린여행서쓰기 행사를 펼치는 등 전주관광상품에 대한 판촉활동을 전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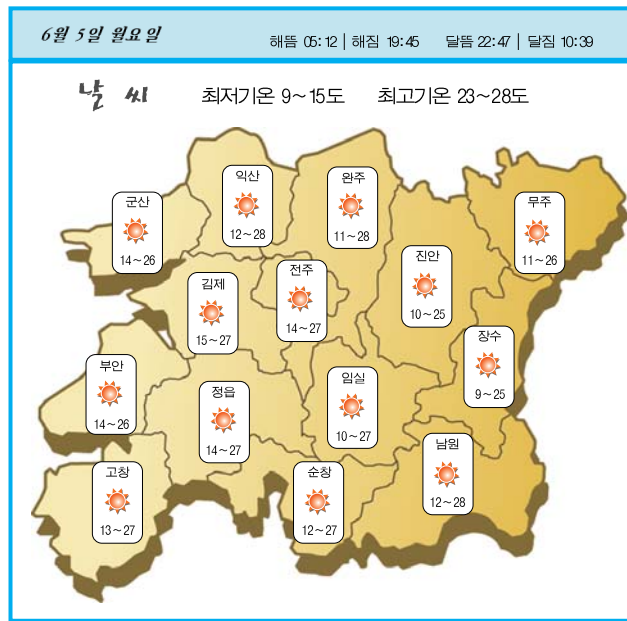
최라기 문화관광체육국장은 "U-20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전주가 국제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국제 관광전을 통한 도시이미지를 알리고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철도와 연계한 SIT여행상품, 전주문화재여행상품, 덕진공원 힐링공연상품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외국인관광객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국제관광전은 해외 70여개국, 국내 80여 개 지자체 800여개

업체가 참여한 국내 최대 국제관광전으로 매년 10만명 이상 참가하는 대규모 관광전으로 관광과 관련한 최신 여행정보와 다채로운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관광홍보관과 해외관광홍보관, 특별기획관으로 구성돼 운영됐다.

/신재용 기자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품안전의날 행사 참여

### 어린이 급식 중요성 알려

전북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일과 3일 양일간 전북도청 광장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7 초록이 와글와글! 그린웨이 환경축제'에 참여하여 식품구성 자전거를 통해 5가지 식품군의 종류와 역할을 배우는 식생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행사를 찾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구슬 팔찌 만들기 체험도 병행해 아이들에게 골고루 먹는 식생활과 운동의 중요성을 알렸다.

노정옥 센터장은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 대한 영양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 바른 식생활의 중요성과 센터의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참여했다"며 "어린이 급식 안전을 확보하기, 관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단체급식의 체계화를 통해 어린이 급식소가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얻으며 어린이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라북도, 전주시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정해은 기자

## 글로벌 융·복합 인재 양성

# 코어사업단, 2년 연속 학업지원금 지원

### 기초학문심화모델 55명 · 글로벌지역학 11명 총 60명 매월 50만원 지급

지난해부터 글로벌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학업지원금을 지원해 온 인문역량강화(CORE)사업단(단장 이종민 · 이하 코어사업단)이 올해도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준다.

코어사업단은 올해 기초학문심화모델 55명을 비롯해 글로벌지역학 11명 등 총 60명에게 매월 50만원의 학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최근 수혜 학생들을 초청해 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학업지원금은 학생들에게 안정적인고 지속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인문학분야의 후속세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학생 지원을 통해 대학원 진학, 전공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연구소 학술활동에 참여하여 연구 역

량을 기르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에 학업지원금을 받는 강한비 학생(한국어교육학과 대학원생)은 "이번 학업지원금 수여를 계기로 등록금 해결에 보탬이 되었다"며 "학업지원금을 통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최봉주 학생(독일학과 4년)은

"학업지원금을 통해서 부모님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린 것 같아 기쁘고, 학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학부 졸업 후에 독일 지역학에 관련한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이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종민 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선발된 학생들도 기초 학문 분야를 보충하고 인문학 분야의 연구인력을 늘려가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수요에 맞는 융·복합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북대 코어사업단은 사업 두 번째 해를 맞아 더욱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통해 인문학 분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순창 동계초,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공모 선정

2017년도 초등학교 대상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선정, 동계초등학교 가을부터 진행

순창 동계초등학교에서는 앞으로 아이들이 교실에서 가상현실을 통해 축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실시한 2017년도 '체육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초등학교 대상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상현실 스포츠시스템의 보급·설치를 통해 체육활동이 취약한 초등학교의 체육활동 참여기

회 확대는 물론 체육 이론 및 실기에 기반한 체계적인 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해 학교 체육 활동의 목표인 도전과 경쟁 활동을 통한 자발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국비 4천여만원을 지원받아 동계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황승주 군수는 "가상현실을 통해 건강한 몸과 정신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역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